

自省錄序*

옛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실천이 따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서였다. 지금 친구들과 학문을 강구하느라 서신을 서로 나누면서 한 말은 부득이한 것이지만, 이미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겠다.

하물며 이미 말한 뒤에, 저 편 사람은 잊지 않았는데 내가 잊은 것이 있는가 하면, 저 편과 내가 다 잊어버린 것이 있으니, 이것은 부끄러울 뿐 아니라 거의 忌憚 없게 되는 것으로서, 두렵기 그지없다.

그 동안 옛상자 [故篋] 를 뒤져, 보존되어 있는 편지 원고를 베껴서 책상에 두고, 때때로 펼쳐 보면서 여기서 자주 반성하기 그치지 않았었다.

원고가 없어져 기록하지 못한 것도 그 중에는 있을 것이다. 하기가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편지를 다 기록하여 큰 책 [卷帙] 을 만들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?

嘉靖 戊午²⁾ 단오 후 일일
退溪老人 적음

* 퇴계학연구원, 『退溪學 譯註叢書』 제13권(1996)에서 발췌·수록한 것임

- 1) 『自省錄』에 서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, 序文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다.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만 있을 뿐이다. 따라서 역문에서의 서문이라는 제목의 두 글자는 역자가 임의로 붙인 것임을 밝혀 둔다.
- 2) 이 때가 명종 13(1558)년, 퇴계의 나이 58세에 해당한다. 이 전 해에 그는 이미 陶山의 남쪽에 서당 지을 땅을 구한 다음, 退居하여 연구와 강학에 전념하려는 결심을 굳힌다.